

총장/기획부총장/교무처장 직무수행 평가 설문조사 결과보고

교수협의회에서는 총장, 기획부총장, 교무처장의 직무수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 설문 목적

총장 이하 주요보직자들의 대학 운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평가와 지지도를 파악하여, 우리 대학의 민주적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함.

※ 설문 기간: 2023. 5. 8(월) ~ 5. 22(월)

※ 설문 대상: 교무위원을 제외한 전임교원

※ 설문 방법: 이메일과 Google Forms를 이용

※ 설문 응답자: 104명 (참여율 23.5%)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 5. 24

총 장

1. 홍성태 총장은 대학의 최고경영자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긍정평가: 12%, 부정평가: 61%



긍정평가: 12%, 부정평가: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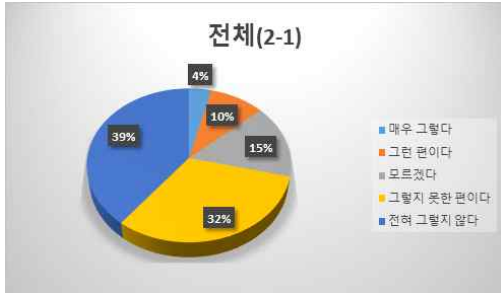


긍정평가: 11%, 부정평가: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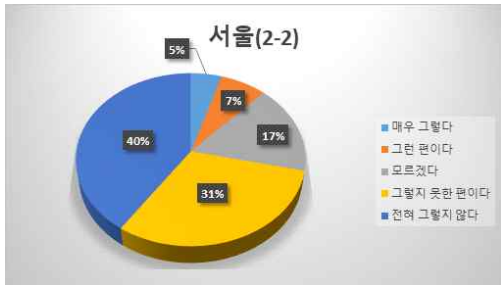
(단위: 응답자수)

	전체	서울	천안
매우 잘한다	5	2	3
잘하는 편이다	7	3	4
보통이다	28	10	18
잘못하는 편이다	35	14	21
매우 잘못한다	29	13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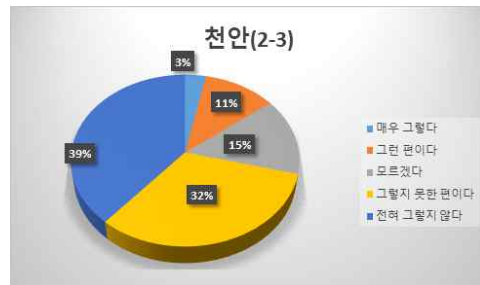
2. 총장은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구성원들에게 제시하였다고 보십니까?



긍정평가: 14%, 부정평가: 71%



긍정평가: 12%, 부정평가: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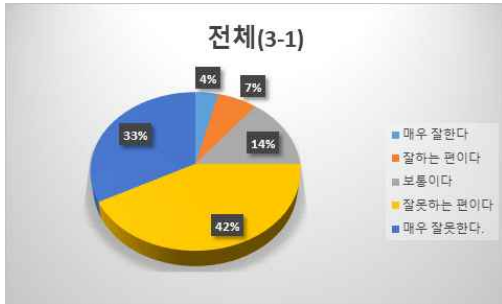


긍정평가: 14%, 부정평가: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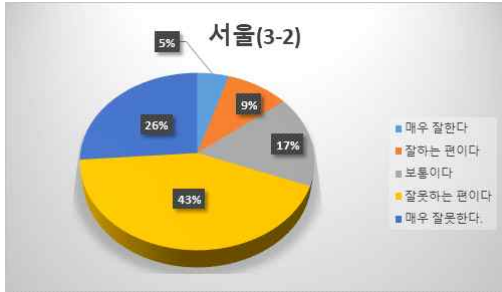
(단위: 응답자수)

	전체	서울	천안
매우 그렇다	4	2	2
그런 편이다	10	3	7
모르겠다	16	7	9
그렇지 못한 편이다	33	13	20
전혀 그렇지 않다	41	17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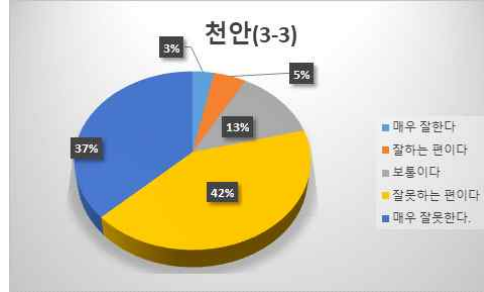
3. 총장은 대학의 재정건전성 확립(등록금외 수입증대, 국고지원금 확대, 발전기금 유치 등)을 위한 노력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긍정평가: 11%, 부정평가: 75%



긍정평가: 14%, 부정평가: 69%



긍정평가: 8%, 부정평가: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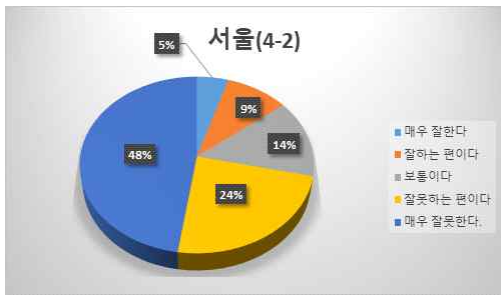
(단위: 응답자수)

	전체	서울	천안
매우 잘한다	4	2	2
잘하는 편이다	7	4	3
보통이다	15	7	8
잘못하는 편이다	44	18	26
매우 잘못한다	34	1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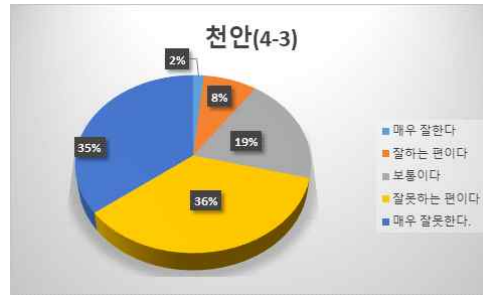
4. 총장은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구성원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긍정평가: 12%, 부정평가: 71%



긍정평가: 14%, 부정평가: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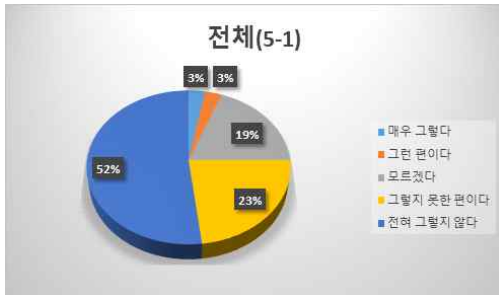


긍정평가: 10%, 부정평가: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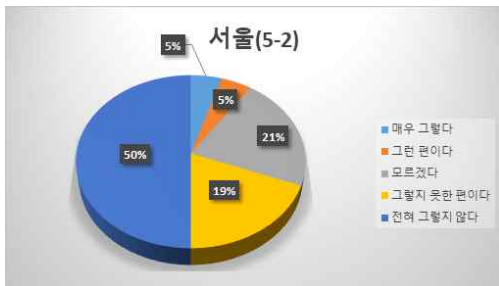
(단위: 응답자수)

	전체	서울	천안
매우 잘한다	3	2	1
잘하는 편이다	9	4	5
보통이다	18	6	12
잘못하는 편이다	32	10	22
매우 잘못한다	42	20	22

5. 총장은 교원 인사(교무위원 선임 등)에서 다양한 분야와 출신의 교원을 고루 기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긍정평가: 6%, 부정평가: 75%



긍정평가: 10%, 부정평가: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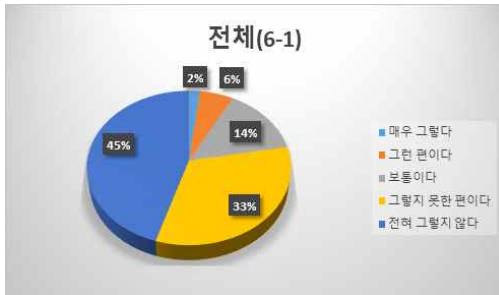


긍정평가: 3%, 부정평가: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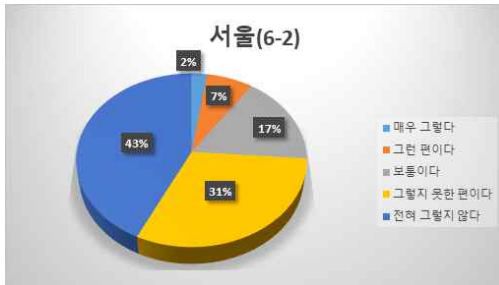
(단위: 응답자수)

	전체	서울	천안
매우 그렇다	3	2	1
그런 편이다	3	2	1
모르겠다	20	9	11
그렇지 못한 편이다	24	8	16
전혀 그렇지 않다	54	21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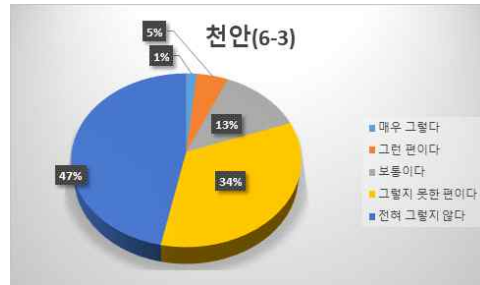
6. 총장의 현행 교수충원 정책(비정년트랙 중심의 교수충원 등)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긍정 평가: 8%, 부정 평가: 78%



긍정 평가: 9%, 부정 평가: 74%



긍정 평가: 6%, 부정 평가: 81%

(단위: 응답자수)

	전체	서울	천안
매우 그렇다	2	1	1
그런 편이다	6	3	3
보통이다	15	7	8
그렇지 못한 편이다	34	13	21
전혀 그렇지 않다	47	18	29

7. 총장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써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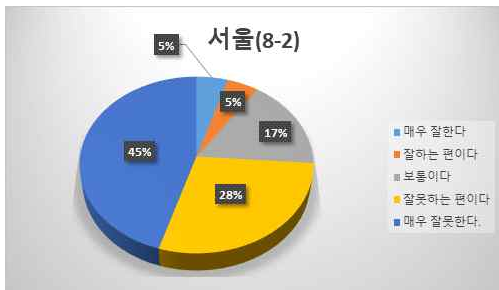
※ 주관식 서술문항의 응답내용은 맨 뒷부분(19쪽)에 첨부하였습니다.

부 총 장

8. 권기환 기획부총장은 기획업무(학사구조 개편, 학생정원 조정, 공간 조정, 부서간 업무 조정, 예산운영 등)의 책임자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긍정평가: 6%, 부정평가: 81%



긍정평가: 10%, 부정평가: 73%



긍정평가: 4%, 부정평가: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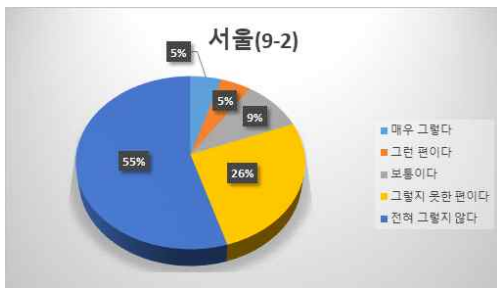
(단위: 응답자수)

	전체	서울	천안
매우 잘한다	3	2	1
잘하는 편이다	3	2	1
보통이다	14	7	7
잘못하는 편이다	26	12	14
매우 잘못한다	58	19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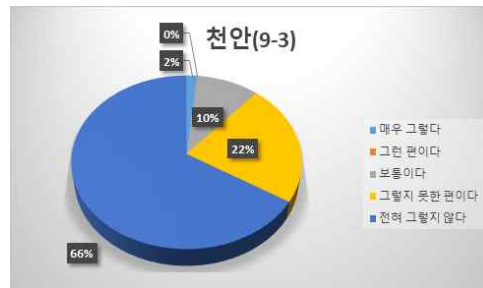
9. 기획부총장은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필요성, 내용에 대하여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긍정평가: 5%, 부정평가: 85%



긍정평가: 10%, 부정평가: 81%



긍정평가: 2%, 부정평가: 88%

(단위: 응답자수)

	전체	서울	천안
매우 그렇다	3	2	1
그런 편이다	2	2	0
보통이다	10	4	6
그렇지 못한 편이다	25	11	14
전혀 그렇지 않다	64	23	41

10. 기획부총장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성원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긍정평가: 6%, 부정평가: 88%



긍정평가: 9%, 부정평가: 84%



긍정평가: 3%, 부정평가: 92%

(단위: 응답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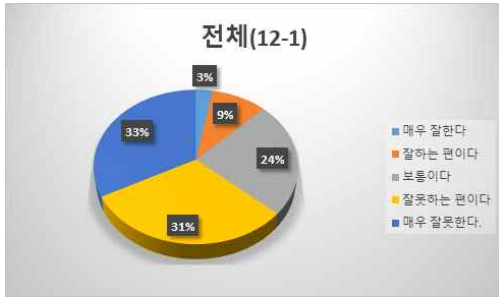
	전체	서울	천안
매우 잘한다	2	1	1
잘하는 편이다	4	3	1
보통이다	6	3	3
잘못하는 편이다	25	9	16
매우 잘못한다	67	26	41

11. 기획부총장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써주세요.

※ 주관식 서술문항의 응답내용은 맨 뒷부분(19쪽)에 첨부하였습니다.

교 무 처 장

12. 양석준 교무처장은 교무업무(전공교육과정, 분폐강 관리 등의 학사운영, 교원인사 관리 등)의 책임자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긍정평가: 12%, 부정평가: 64%



긍정평가: 17%, 부정평가: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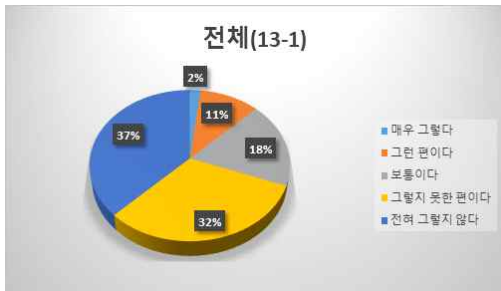


긍정평가: 10%, 부정평가: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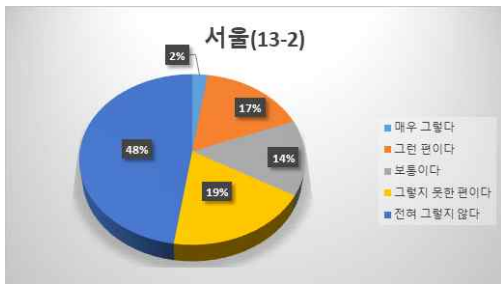
(단위: 응답자수)

	전체	서울	천안
매우 잘한다	3	2	1
잘하는 편이다	10	5	5
보통이다	25	7	18
잘못하는 편이다	32	9	23
매우 잘못한다	34	19	15

13. 교무처장은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필요성, 내용에 대하여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긍정평가: 13%, 부정평가: 69%



긍정평가: 19%, 부정평가: 67%



긍정평가: 8%, 부정평가: 71%

(단위: 응답자수)

	전체	서울	천안
매우 그렇다	2	1	1
그런 편이다	11	7	4
보통이다	19	6	13
그렇지 못한 편이다	33	8	25
전혀 그렇지 않다	39	20	19

14. 교무처장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성원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긍정평가: 12%, 부정평가: 63%



긍정평가: 17%, 부정평가: 64%



긍정평가: 8%, 부정평가: 63%

(단위: 응답자수)

	전체	서울	천안
매우 잘한다	2	1	1
잘하는 편이다	10	6	4
보통이다	26	8	18
잘못하는 편이다	20	6	14
매우 잘못한다	46	21	25

15. 교무처장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써주세요.

※ 주관식 서술문항의 응답내용은 맨 뒷부분(19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설문자

16. 교수님의 소속 캠퍼스는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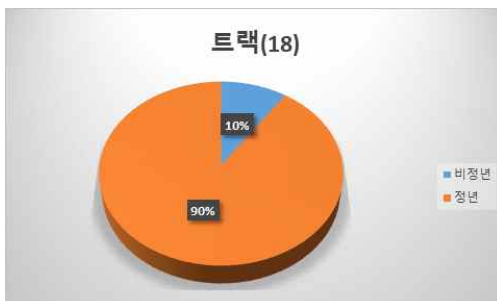
	응답자수
서울	42
천안	62

17. 교수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응답자수
조교수	25
부교수	25
정교수	54

18. 교수님의 트랙은 무엇입니까?



	응답자수
비정년	10
정년	94

19. 대학운영 전반에 관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써주세요.

※ 주관식 서술문항의 응답내용은 맨 뒷부분(19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주관식 서술문항 응답내용

- ※ 응답내용의 원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 ※ 표현 수위가 높거나 중복된 내용의 응답인 경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7. 총장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써주세요.

총 응답 47개 중 34개 발췌

<p>우리학교는 전문대가 아닙니다. 훌륭한 교수진을 유치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해서 20위권 이내 대학으로 들어갈 것을 목표로 해야지요.</p>
<p>전시 행정보다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함_천안캠퍼스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업무와 정책 시행 요청</p>
<p>학내 비용절감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겠지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매칭되지 않는 이유로 우격다짐의 추진이 많아 오히려 학생들 즉 수요자 중심이 아닌 학교행정편의를 위한 조정이 많이 발생하여 학교의 발전과 성장이 후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p>
<p>다른 전공의 구조조정(학생수 조정 등)만 강요하지 않기를 바란다. 총장 등 대학경영진은 학생, 교직원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출신수범하지 않는 경영진을 누가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p>
<p>졸업 동문들을 한데 모으는데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방학때마다 대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명출신 교수님들의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편을 가르고 있네요.</p>
<p>교수들과 총장 사이에 소통 창구가 되어주어야 할 주변 보직에 누가봐도 대인관계의 소통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 두고 일하시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교수들과 소통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신것 같습니다.</p>
<p>전체 교수회의를 통합으로 서울과 천안에서 번갈아 운영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제시되어야 할 미래 비전은 전무합니다. 기억나는 것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엄포성 발언 밖에 없습니다.</p>
<p>부디 균형있는 인사를 조속히 시행하기 바라고, 학교 중장기 비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구성원과 소통하여 일관된 행정을 펼치기 강력히 희망함.</p>
<p>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p>
<p>교내 연구실도 예전과 달리 알음알음 배정하고, 연구자가 연구할 수 있는 실험공간 배정도 안해주고. 급여문제에서도 연봉제가 진정한 연봉제인지도 모르겠고(연구성과가 아닌 산학성고가 사실 연봉제에 큰 영향을 미쳐서 연구를 할 이유가 없음. 전공마다 산학의 정도가 다른데 연봉제가 산학교수들 대상도 아니고 또한 정근수당은 왜 연봉제에 포함되지 않느지, 정근하지 않은 사유가 호봉제 교수들에게 있는가도 궁금함. 또한 연봉제 교수들끼리만 하면 별 승산도 없음. 모든 교수들에게서 %를 논해야 하는데. 또한 호봉제에서 연봉제 넘어갈때도 고용노동부에서 지키라고 한 것들을 지켰는가에 대한 문의가 있음. 새로 채용된 초빙교수 중 특정 사람만 급여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의 진위를 떠나 이런 것들이 모두 투명하지 않게 운영된 결과라고 판단됨. 투명하지 않으니 자꾸 학내에 말이 많음. 총장님은 잘 가르치는 교육을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모든 행정이 학생 민원 줄이기가 학교 비전인 것으로 착각됨. 조직론과 조직행동을 배우셨을텐데 조직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어떤 것이 조직 구성원을 사기를 진작시키는지, 행복한 교육을 하기위해서 행복한 교수와 교직원이 필요하지 않은지(행복한 조직원이 행복한 소비자를 만들듯) 본부 대부분이 경영학 혹은 무역학 전공자인 만큼 어떻게 호혜적인 관계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길 바람. 자리에 연연하기 보다는 정말 교수로서 총장은 삶에서 2-4년 뿐이지만, 교수로서의 삶에서 교육자로서 교수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주시길 바람. 총장이라는 자리가 학생들뿐 아니라</p>

<p>교수들의 의견도 법인이나 학교에 대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학교의 경우 오히려 총장이 교수들에게 교권이 너무 그동안 높았다고 하는데 뭐가 높았는지 학습자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권도 균형을 맞춰 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 교수자를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 서로의 존중을 기반으로 학교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학생 민원으로 모든 정책의 첫번째 사유로 들어 집행하니 처벌이 무서워 교정하는 것은 여기는 교도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임. 선생님이 아이들이 합당하게 요구하는 것과 무리한 것은 토론과 대화로 조정을 해야 하는데 민원 넣을 수 있고 넣었다고 그것을 방지하는 대책만 만드는 것이 학교인지. 또한, 자신의 책임을 부총장들에게 전가하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동안 상명인으로 삶을 보내신 만큼 앞으로의 상명의 미래를 위해서도 마무리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p>
<p>지난 2년여를 현재와 비교해 보았을때 모든 면에서 대학의 여건들이 나빠졌다고 생각되며 특히 대학 구성원 대부분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됨</p>
<p>1. 홍성태 총장은 기업의 좋은 경영자의 자질을 갖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오기 전에 어떤 기업에서 일했는지요. 그러나 대학의 최고경영자로서의 자격에 대해서는 심히 의구심이 큼니다. 이곳은 학교입니다. 이곳은 대학입니다. 이곳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총장은 대학을 단순한 경영학의 논리 위에 놓고 복잡한 생태조직을 가지고 있는 대학을 단순히 이익의 논리로 재단하려는 태도에 심히 걱정이 큼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우 잘못한다'에 표시를 하려고 있으나, 이것은 그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그런 그를 그만 방만하게 쳐다 보고 있는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 "잘못하는 편이다"에 표시하겠습니다.</p> <p>2. 대학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적이 있나요? 매년 대학의 경영위기관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아껴쓰라는 말 이외에 어떤 비전이나 목표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실 공간을 잃어 버렸습니다. 교수들은 연구와 교육의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비전과 목표는 당장의 이해관계와 손익을 통해 제시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당장 그래서 돈이 좀 남았다고 칩시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 대학이 5년 후나 10년 후의 미래의 비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돈 얼마 남겼다고 이사회에 가서 생색낸 후, 자기 총장에 연임할 생각이 있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총장의 남은 임기만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그냥 건디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p> <p>3. 밖에 나가서 인관관계를 넓히고, 학교의 수익사업이 될만한 프로젝트를 따오고 지역사회와 상생할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총장의 임무입니다. 시험을 제대로 보는 지 확인하러 돌아다니고, 개별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마치 모든 우리 학생들의 생각인양 호들갑을 떨면서 행정을 좌지우지 하는 태도가 너무 도르러져서 참으로 우울할 지경입니다. 기업에서 오래 임원을 한 자를 우리학교가 총장으로 임용한 것은 그러한 재정건전성 확립이 도움이 될 까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성태 총장은 가족들 허리띠나 졸라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할 뿐 무슨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p> <p>4. 민주적 운영?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독단, 독선적인 총장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보다 큰 노장이 찍혀 있는 꼴을 못 본 다는 소리가 직원들 사이에 있습니다. 깊이 있게 관찰하십시오. 아래에서 보내는 서류도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직접 분석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니 속이 어떻게 썩어가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p> <p>5. 우리학교가 서울대 동문들 장기자랑하는 곳입니까? 그래서 뽑은 인사들이 일을 잘 합니까? 더 말 안 하겠습니다.</p> <p>6. 엉망입니다. 우리학교 교수임용광고문 같은 거 보면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전체 모두 비정년만 임용합니다. 총장인가 기획부총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정년 뽑아서 일 하는 것 보고 정년으로 올라보낼 것이다". 이거 밖에서 들으면 신문에 날 노릇입니다. 그런 총장과 부총장은 비정년으로 임용되어 실력인정 받고 정년이 된 것인가요? 비정년 트랙에서 10년이나 고생한 사람들 정년으로 올려주는 트랙전환에서도 총장 맘대로 인사를 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갑자기 규정을 바꿔서 올려주고 싶은 사람 올려줬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논문 한 편 없는 사람도 비정년 1년 만에 정년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어떤 비정년 교수는 자기가 총장이랑 등산도 같이 하는 사이임을 강조하면서 정년되는 거 어렵지 않다고 했는지요. 정신차리십시오. 총장맘대로 인사하라고 그 자리에 둔 거 아닙니다. 이런 소문이 쌓이면 결국 화살은 총장에게 갑니다. 이런 인사관을 가지고 있는 총장이 있다면, 아랫 사람 누가 학교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까? 아랫사람을 진정을 다해 다독이고 해도 모자랄 때입니다. 부디 새겨 들으세요.</p>
<p>캠퍼스마다 특성을 고려하여 어느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균형잡힌 정책을 통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주세요</p>
<p>전반적인 학교 운영의 힘쓰기 보다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먹구구식의 운영은 지양하길</p>

바란다.
1.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비정년트랙 연봉협상 요청 2. 비정년트랙에서 정년트랙으로 신속전환할때 객관적인 업적점수 기준으로 판단요청
총장님을 비롯한 주요보직자들 - 기획부총장 및 교무처장 - 이 편협한 사고와 자기 중심적인 뻘뻘어린 언행으로 4차산업시대에 필요한 유연하고 열린 가슴에 역행하시는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심으로써 상명대학교 구성원들을 실망시키고 분노케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비정년 교수임용시 그리고 재임용시 연봉에 관한 안내 및 협상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경력에 의한 연봉 산정도 상식선과 타 학교와 비교하여, 매우 일방적이며 적용기준이 없습니다. 이는 기본 교육노동에 매우 불평등한 관행으로, 대학이라는 한 사회의 대표적인 협력 공동체의 위상에 맞지 않습니다. 결국 교육자의 능력을 잘 활용 해야 할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지속성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 대학의 대표자로서 지혜롭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실질적인 우리 대학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위해 이 부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업무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거의 대부분의 대부분 주요 행정 업무가 너무 갑작스럽게 내려오고, 급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강하며, 업무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체 구성원의 역량을 살려 곳곳에서 그 역량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 수요 중심의 대학 운영을 말씀하시면서도 학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과목 수 줄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 학생 수요의 최적 가치는 우수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학생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천안캠퍼스의 경우 통학버스 및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 학생들의 문제제기가 오랫동안 그다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이 학교에 장시간 머물 수 있는 휴식 공간 등 복지시설도 부족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대신 총장님께서 구성원과 소통하려고 하고 학생들과 자주 만나며 서울과 천안의 교양 교과목을 공통으로 운영하는 점 등에서는 정서적으로 구성원에게 안정을 주고 캠퍼스 연계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는 점은 좋게 평가할 수 있다.
20년 비전을 세우고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장님은 소통을 강조하나 소통없이 기획된 안들이 결국 총장님의 승인을 득하여 실행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통이 그저 권고사항 정도인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지시사항인지 명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정년트랙 교수 충원 시 상명대 출신 교수의 충원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교수 충원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소통하자고 하시는데 많은 부분에서 일방향적으로 전달된다. 이 부분이 총장님의 문제인지 학교 자체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다.
상명대학교가 진정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과 이에 대한 구성원들과의 의견 공유가 필요합니다. 총장은 큰 틀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사전 소통과 의견 개진을 통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프로세스로 직무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전임교원의 충원은 학교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학과사무실들의 폐쇄 및 통합을 각 학과 구성원들인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니 지금이라도 돌이키기 바랍니다.
전체 교수회의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을 기억합니다. 현재 직무 형태는 학과의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교원과의 소통하는 형태입니다. 현 설문조사 의견을 통해서 작금의 소통 방식에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교직원에 대한 지원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설득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과대학을 타겟으로한 조교 인원감축의 경영은 너무 많은 고민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수한 대학과 비교를 해보았을때 조교가 없는 학교는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위기의 대학을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학2팀 신설과 더불어 학과사무실 회수까지 아직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고 정확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으며 과연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인가에 대한 의문만 남습니다. 주변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시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교의 위기감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 해결책을 학교의 대외적 발전이 아닌 내부 조직의 축소 및 통폐합에서 찾으려 하는 것 같다는 부분에서 우려가 됩니다.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이벤트성 행사 위주의 직무가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운영안이 제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p>총장이 대학 운영을 위한 분명한 어젠다를 제시하고 그에 부응하는 교무위원 진용을 짜야 하는데 구성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교무위원 인사권이 총장에게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걱정스러운 현상이다.</p>
<p>편향된 시각의 행정이 추진된다고 생각됨</p>
<p>상명의 구성원 이라면 누구도, 그게 크게 보이던 작게 보이던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함께 상명의 미래를 만들어 갈수있다고 생각합니다.</p>
<p>조직의 수장으로써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을 아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학의 위기는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는 상명 미래의 비전을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장님이 구성원들과 교류, 소통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으로는 보여지나 이에 대한 의견이 학교정책 및 민주적 운영에 반영되는 변화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 특히 대학의 발전과 비전 및 재정 건정성을 위한 외부적인 활동은 부재하며, 모든 것을 구성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행정을 방관하는 부분에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교무위원 선임 특히, 주요 보직에 있어서, 능력보다는 학벌 중심의 등용이라는 교내 구성원들의 갈등과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총장님의 깊은 고민과 보다 넓은 해안으로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양캠퍼스의 특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각각의 다름을 이해해주시고, 이에 대한 적합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p>각 단과대학의 고민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주시기를 바랍니다.</p>
<p>정책 1순위가 비용절감으로만 보입니다.</p>

11. 기획부총장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써주세요.

총 응답 44개 중 27개 발췌

대안 부재, 비효율적 업무 처리에 대한 책임, 책임지질 못할 사항에 대한 구성원의 소통 필요
직책에 비해 매우 가벼운 언행이 큰 문제이다.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 사용 필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조용히 물러나시는게 본인과 학교 모두를 위해 좋습니다.
서울, 천안을 통합하는 기획을 하고 있는 지 의심스러우며, 서울캠퍼스와 천안캠퍼스의 동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천안캠퍼스 기획부서의 부활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다른 전공의 구조조정(학생수 조정 등)만 강요하지 않기를 바란다. 교수회의에서의 말과, 그 이후 대학경영 관련 실제 조치 결과가 불일치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대학경영진은 봉사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출선수범하지 않는 경영진을 누가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전체교수회의에서 발언할 때 보면,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교강사들을 정말로 존중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의견청취하고 본인의견대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운영하는 요식행위하지 맙시다.
전체교수회의에서 부드러운 화법을 구사하려는 노력은 인정되지만 '기획의 고민과 설정된 목표'에 대해서 진지하게 발표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계획과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을 단대별 혹은 학과별로 진행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바쁜 것과 기획 부재로 스케줄관리가 안되는 것은 매우 다른 차원입니다.
대학운영과 기획에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 방안에 대한 세심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구성원들의 합의를 끌어내는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잘 적용하길 바랍니다.
소통하기가 매우 어렵고, 일단 대화가 안되니 기획부총장으로 있기에 리더로서 최소 요건(의사소통역량)이 안된다고 판단됨.
현 기획부총장의 경우 항상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있으나 그 설명과 이해를 도대체 어디서 구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다. 이토록 모든 학교행정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그리고 그 책임은 본인이 자주 언급하고 있는 전문대보다 아주 조금 나은 상명대학교 교수직으로 져야 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람.
구성원들과의 소통이 전혀 없어보이며 캠퍼스내 특성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듯합니다.
기획에서 해야 할 업무와 역할을 교육단위에 전가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은 기획을 하는 부서이지 교육단위에서 기획안을 요청하고 받아 심사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단위 평가결과를 갖고 있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즉시 공개하여 각 학과별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소통의 부재. 일방향적 전달.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황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과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먼저 하십시오
학교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사전 소통과 의견 개진을 통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프로세스로 직무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전임교원의 총원은 학교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학과사무실들의 폐쇄 및 통합, 학과사무실 공간회수 등을 각 학과 구성원들인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니 지금이라도 돌이키기 바랍니다.
당장의 정량적 지표를 맞추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지금을 위해서 미래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은 동족방노일 뿐입니다.
학교사정으로 예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득과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호통과 강압적인 업무추진은 반발심만 생성하고 있는게 현 상황이며 대화, 양보, 이해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도출하지 못하는것에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말만 하지 말고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매우 권위적인 사고상식으로 직책을 수행하는것은 아주 잘못된 업무수행임.</p>
<p>대학의 모든 정책과 운영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 없이 모든 것을 예산 문제로 돌리고 책임 회피성 변명으로 일관하는 지금의 태도를 유지할 것이면 직책을 내려놓기 바란다.</p>
<p>기획부총장이 그간 구성원에게 보인 모습에서 대학의 운영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려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언행은 지극히 경솔하다. 구성원들에게 대학의 기획사업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켜왔다.</p>
<p>기획은 앞으로의 일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난 정책에 대한 비판만을 했을 뿐입니다. 부디 해안을 가지고 상명의 고민을 해주시고 서울캠퍼스와 천안캠퍼스를 아우르는 기획을 맡으신 분이니 힘드시더라도 양 캠퍼스를 이해하고 알아가시는 것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더 이상의 무지에서 나오는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주요 사항들은 구성원들간의 불협화음만이 있을 뿐입니다.</p> <p>지역과 단과대가 다른 우리 학교의 양 캠퍼스는 서로 다른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무시한채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양캠퍼스를 획일화, 기준화시키려고 한다는 의견입니다.</p> <p>천안 인근 대학의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들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 우리는 정보도 없었나! 정보가 있었다면 할 수 있는, 하면 되는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했을까??? 지금 구성원들이 느끼는 것은 너희는 안돼, 이래서 안돼.. 하고 있는 것도 안돼!!!! 라는 말뿐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부총장은 전체교수회의때의 발언은 항상 인상적입니다. 언제나 지난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나, 부총장직을 맡으신지 2년 넘게 아무런 비전과 학교 전체의 기획업무의 수장으로써 맡은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상명은 점점 퇴보하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상명을 사랑하는 구성원으로써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특히, 구성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들(저도 당해본적이 있습니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더로써 보다 겸손하고 교육자로써 갖춰야할 인성이 어떤 것인지 다시한번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 서울캠퍼스 기준으로 구성된 교무위원들은 진정으로 양캠퍼스를 잘 아우르고 있는지... 또한 기획부총장으로써 다시한번 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p>모든 사안을 이미 결정을 내린 채로 추진하기 때문에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p>
<p>합리성이 결여된 "내 마음대로" 식의 일방적 업무 추진을 지양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15. 교무처장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써주세요.

총 응답 37개 중 19개 발췌

천안 교무처장의 필요
교무처장을 서울과 천안을 하나로 묶어서 운영한다는 발상은 참으로 안타깝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교양과 전공을 강화하는 교육을 주장하면서 천안에 상주하는 교무처장이 없이 단과대학으로 행정을 분산하여 조지하는 진행이 과연 학생과 학교를 위하는 방법인지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교무관련 의사결정권자 라는 갑질의식이 매우 심하네요.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 하시지만 일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 근본적으로 교수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일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교무처 업무는 일관성이 중요한데 업무처리가 그렇지 못함.
유연하게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장의견과 학생민원(민원이라고 예상하는 것들?)에는 민감하지만 교무처장으로서 학교를 만들어나갈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음. 소통이 어렵고 말에 일관성이 없으며 이랬다 저랬다 하니 밑에서 일하는 교수와 직원은 업무가 혼돈되고 매우 어려움. 매우 독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공청회에도 정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조정가능하다고 하고 언제 조정하는 것인지 모르겠음.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시행을 본인 또한 파악하지 못한듯해보이고 구성원들과의 소통 또한 부족해보입니다.
지난 10월 교육과정 관련 온라인 회의때... 교무처장으로서 준비도 안되고 잘 모르는 듯한 상황... 대학평가에 보여지는것에만 집중하고 진정한 교육의 질은 생각하지 않는가.
아래와 같이 비정년트랙에서 정년트랙 신속전환 기간이 다릅니다. 1학기 임용자는 총2년반 소요 2학기 임용자는 총3년 소요 신속전환 신청을 2학기도 할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무처의 갈짓자 행보(2022년 교과과정 개편 당시)가 구성원들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야기합니다. 현황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과 적절한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주세요
학교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사전 소통과 의견 개진을 통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프로세스로 직무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전임교원의 총원은 학교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학과사무실들의 폐쇄 및 통합을 각 학과 구성원들인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니 지금이라도 돌이키기 바랍니다.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은 대학발전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되지않음.
통합 교무처장 운영은 현단계로서는 실패한 실험으로 보인다. 두 캠퍼스의 교무 업무 조율능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개인의 능력 문제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학사구조나 교원 인사에 대해 실무처장은 비전을 제시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보였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방학 중 등록금 대비 개설 시수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논란이 많아지자 교수의 시수 보장,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앞세워 전공별 1안, 2안을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과연 지금 예외 없이 시행하고 있을까요?
전임 교원의 과도한 시수를 막기 위해 설정 시수 이상은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비정년 교수들에게는 '사유서'는 큰 부담감이 되는 일이므로 정년 교수들의 75프로 정도의 급여를 받는 비정년 교수들은 추가 강의료에 대한 부분을 포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지금 예외 없이 시행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정책을 시행 전 충분한 검토를 부탁 드리며 소리 내지 않고 묵묵히 잘못된 정책임을 알고도 협조하는 교

<p>수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p> <p>전기획처장직을 맡으셨던 분으로써 기획과 교무는 같은 목표를 향해 일관성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p> <p>그러나 본인은 '기획은 모른다'식의 답변은 구성원들의 교무의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습니다.</p>
<p>- 양석준교무처장 임용 이후 늦어지는 의사결정들...교수총원, 강사임용, 수업 관련 업무 등의 교무관련 업무들은 무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학기의 경우에도 아직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학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태만인가요?</p> <p>- 지난 학기 학과별 개설 총 시수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과별 특성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기준 적용 방안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 없이, 시수를 제한하겠다는 발표 이후, 문제점이 발생하자, 유형1, 유형2를 선택하라는 대안 마련... 이러한 조치는 실효성이 있었는지, 오히려 구성원들의 불안감 조성 과 조직의 와해를 조장한 것은 아닌지요. 어떤 정책을 시행전에는 충분한 검토 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p> <p>- 교무위원의 보직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 것은 우리모두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학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교무처장으로써 투명하고 바르게 학교를 이끌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p>
<p>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장이 아니라 각 학과, 전공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p>
<p>수업의 질 향상과 별 관련 없는 여러가지 사안을 자의적으로 밀어 붙여서 교수 및 조교의 잡무만 늘리고 있습니다.</p>
<p>합리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로 학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일부 운영안은 교권 침해적 요소까지 있어 수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됩니다. 학교 내 모든 활동들은 구성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길 바랍니다.</p>

19. 대학운영 전반에 관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써주세요.

총 응답 50개 중 35개 발췌

<p>법인이슈, 학교 재정 문제 등 산적인 현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나 역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 전체를 냉소주의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현재도 애를 써주고 계시지만 교협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p>
<p>우리 대학 운영은 과거에 한건 다 잘못하고 지금 운영은 다 옳고 들으려하지 않으려는 독단과 독선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성원의 의견과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래서 총장 직선제가 필요함</p>
<p>천안캠퍼스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가라 앉고 있는 현재 상황이 상명대학교의 미래인 듯 하여 심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일수록 대학은 구성원들과 함께 사업의 디테일을 챙겨서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계획, 정책, 그리고 업무 추진이 되어야 되는 데, 과거 15년전, 10년전, 5년전, 3년전에 비교하여 경쟁력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음을 체감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상명대의 모습을 희망합니다.</p>
<p>최악의 소통없는 일방적인 지도부라고 생각함</p>
<p>많은 이들의 의견 반영과 참여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교무위원들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큰 비전이 수립되어 학교가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운영되기를 바랍니다.</p>
<p>갈수록 어려워지는 교육여건에서 상명대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무위원들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행정의 편리성 보다는 계획의 구체성을 위한 개편과 변화에 무게를 두고 열린 정책을 당부드립니다.</p>
<p>약 10년 간 비정년트랙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인사를 위해 수시로 바뀌는 대학 내 정책과 규정을 인내하고 있는 한사람으로 정당한 처우 개선을 요청드립니다.</p>
<p>총장직선제 필수</p>
<p>상명대는 그 동안 많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이정도 버텨온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함. 총장도 직선제를 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교수들에게도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교수들의 의견도 반영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교수들의 의견은 그 동안 너무 묵살되거나 특정 정권(?) 세력 교수에 의해서 편향되어 왔다고 판단됨.</p>
<p>총장단이 바뀔때마다 반복되며 어수선한 졸속행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통해 대학의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길 바랍니다. 특히 천안캠퍼스를 너무 성의없는 처사로 희생도구로 사용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p>
<p>주먹구구식의 운영으로 지잡대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이며,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게 하는 요즘의 학교 분위기는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오게 한다.</p>
<p>1. 대학 운영 비용 관련: 각 부서의 운영비를 알뜰하게 사용하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부분이지만, 현재 이미 충분히 절약하고 있는 상황이며, 설령 더 절약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학운영비 방안 관련 기존의 내부 비용 절약 차원이 아니라 학교 외부에서 새로운 자금을 수주해야 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학교와 총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적극적인 외부수주활동을 통해 대학운영비를 확보해 주시면 하는 바램임.</p> <p>2. 교수임용 관련: 교수 월급이 타학교와 비교해도 너무 적음. 특히 신입교원을 모집하려 해도 임금도 낮고 비정년트랙 위주로 공고를 내니 훌륭한 인사들이 상명대학교에 오지를 않음. 기존 훌륭한 교수들 중에도 월급이 너무 적어서 타학교로 이직한 경우도 많음. 이런 현상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야기함.</p> <p>3. 업무 진행 절차 관련: 학교 차원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구성원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인 통보 내지는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나서 구성원들을 설득하려 하는 행태가 너무 잦음. 학교와 구성원이 서로 의견 교류 및 조정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소수의 결정권자가 독단적으로 의사 결정</p>

<p>및 업무 진행을 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과 비난도 그들의 몫임. 구성원과의 소통은 단순한 의견 교류가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해 각자 몰랐던 내용도 알 수 있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이 없으니 부분적인 정보 내지는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의사를 결정 및 업무를 진행하니 구성원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고 걱정이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년트랙의 연봉이 너무 열악함(30~40대 교원들 이직 고려 요인) - 비정년 트랙 교수의 정년트랙 전환에 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신속전환 신청 심사 기회를 2학기 임용 교수를 위해 1학기 뿐만 아니라 2학기에도 마련 - 심사대상자의 업적 점수를 상대평가 하지 말고 기준점을 명확히 책정 후 절대평가 하기 - 정년트랙 전환 심사과정 명시화
<p>우선 상명대학교는 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해야 구성원들의 신뢰에 기반한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태를 버리고 새로운 상명대학교로 다시 태어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p>
<p>학교 운영에 예산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진의 능력과 다양성을 학생들 수업에 도입하여 만족과 성취를 주는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학교의 위상이며, 경쟁력입니다. 현재 비용절감을 위한 몇몇 소수의 교수가 여러 강의를 학생들에게 하는것은,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정교수의 최대 강의 시수를 줄이고, 그 예산으로 강사를 고용해야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현장의 전문성을 학생들에게 연결할 수 있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p>
<p>상명대가 민주적으로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학교의 미래와 학생들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대학으로 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행정이 학교와 학생들이 아닌 교수 개개인의 이익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따름입니다.</p>
<p>상명대학교의 10년 뒤 모습이 걱정이 됩니다. 제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p>
<p>정책수립 후 공포 전 형식적인 공청회를 할 것이 아니라 정책수립 이전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한 정책수립이 되어야 하며 구성원들이 소속감과 애교심,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원간 차별, 특정집단에 대한 불이익이나 특혜 등이 없길 바랍니다. 일례로 교수연구실 배정이 논의 및 공지없이 비공개전환된 것은 시대역행적인 처사라고 여겨집니다.</p>
<p>민주적 절차에 의한 대학운영</p>
<p>정년트랙 교수 충원이 필요하며,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에 온전히 매진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p>
<p>원칙도 없이 능력없는 교수 임용을 통해 장기적으로 상명대학교 미래를 망치는 위험한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p>
<p>학교에 발생하는 여러 사안과 업무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소통의 부재가 심각하다.</p>
<p>입학정원 감소.. 지방 소멸 등의 암울한 현실에서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가 가야 할 방향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항상 돈, 돈, 돈하면서 작은 비용을 아끼려 하지 말고 투자해야 할 곳에는 투자하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p>
<p>학교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사전 소통과 의견 개진을 통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프로세스로 직무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전임교원의 충원은 학교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학과사무실들의 폐쇄 및 통합을 각 학과 구성원들인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니 지금이라도 돌이키기 바랍니다.</p>
<p>대학 평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기입니다. 감축과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공평과 형평의 선에서 미래지향적인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p>
<p>우리학교 발전에 애정을 갖는 선배 교수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한 아낌없는 의견에 대해 감증을 해소시켜주길 바라며 쓴소리에 더욱 귀기울여주시고 대학운영 및 발전에 대한 bottom-up 방향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p>
<p>공정한 대학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몇몇 리더들이 독단적으로 끌고나가는 것은 no good.</p>
<p>학교 조직 내부에서 해법을 찾아내기만 바라며 줄 세우기를 통해 책임을 전가하고 독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p>

<p>다. 학교 평가 기준은 학생 유지등록 총원률만이 아니며 학생들의 만족도는 학과 교수님들의 노력만으로 채워지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p>
<p>상명대학교가 진정 발전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비전이 구성원들과 전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벤트성으로 추진되는 졸속한 대학 운영이 조속하게 수정되기 바란다.</p>
<p>대학 위기의 시대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대학 본부는 총장의 비전 아래 구성원들의 호응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현실은 총장이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인지, 총장이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우려스럽다. 총장은 총장에게 주어진 정당하고 적법한 권한을 침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모습을 구성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단기 당면과제 돌파에만 신경쓰다 수십년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상명대학교가 정말 외풍에 견디고 다음세대의 희망이 되는 좋은 대학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이라도 제대로 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p>
<p>몇몇 교무위원 의견으로가 아니라 학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실제 운영에 반영이 되어야 함</p>
<p>홍성태총장단 구성 이후 모든 정책과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성과들은 점점 퇴보하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구성원들이 학교를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p>
<p>표면적으로는 소통을 많이 하려는 듯 하나 실제로는 모든 것이 상명하달식입니다.</p>
<p>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학교가 잘 운영되어 발전하길 바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당위성이나 실효성 그리고 합리성이 의문시되는 일들을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구성원들의 협력과 참여를 구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p>